

# ‘낙농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터

낙농 현안문제가 긴박하게 돌아  
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부족한  
제가 청년낙농인의 대표 역할을 맡  
아 어께가 무겁습니다.

우리 청년분과위원회는 지난  
2000년 결성된 이래 올해 3월 제4  
기 집행부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철폐, 축  
산업등록제 거부 운동, 혼합분유 수입 대응 활  
동 등 낙농문제 개선을 위해 ‘낙농지킴이’ 로서  
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한때 4만호에 육박하던 낙농가수가 올해들어 9  
천호가 무너졌습니다. 국제 무역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낙농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미래  
낙농을 짊어질 우리 청년낙농인들이 낙농가가 발  
벗고 나설 때입니다.

특히 저는 지금 이시대가 요구하는 청년낙농인의  
기본정신을 ‘극기복례(克己復禮)’ 라 칭하고 싶습  
니다. ‘우리 목장은?’, ‘우리 지역은?’ 제도개선을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낙농은?’,  
‘전국 낙농가들은?’ 진정 우리 낙농산업을 살리자



김태식  
청년분과위원장

는 신념으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분  
과위원회에서는 크게 세가지의 활  
동과제를 채택하여 역점을 두고 추  
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낙농문제 개선을 위한 현장  
낙농가 목소리 대변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미 FTA체결에 대한  
대비책 마련,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대책 수립, 수입  
분유 대응 등을 위해 협회와 함께 정책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낙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인재발굴에 역점  
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분과위원 시군대표  
선임으로 전체회의를 확대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협회 활성화 및 조직활성화를 위한 대변활  
동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애정과 열정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낙농가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빌면서, 앞으로 ‘낙농지킴이’ 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많은 성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